

숨은그림찾기 < 107 >



찾아(보)세(요) 촛불, 대접, 새, 열대어, A자, 담배 파이프, 팽이, 다리미, 음표

가장 가벼운 것?

어느 물리학 시간의 일이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체는 무엇입니까?", "우라늄입니다" 그때 강의실의 흥분적인 Y양이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남자의 거시기입니다" "남자의 그것은 얼마나 가벼운지 생각만으로도 세워 올릴 수 있거든요."



지난주 정답

병아리, 음표, 서둘러, 고추, 바늘, 열대어, 은행원, 왕관, 뿔단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진술 <광주시 월산동> 김은아 <장흥군 장동면>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54년 독도 한국 영토 표시 설치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 1~37번지.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망망대해에 동도(산 35번지)와 서도(산 20번지)를 비롯 37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독도(獨島)의 주소다. 독도는 면적이 0.186km에 불과 하지만 긴 갈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연 많은 섬이다.

우리 정부는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기 위해 1954년 1월 18일 독도에 한국 영토 표시를 설치한다. 그해 4월 27일에는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8월 1일 첫 접화를 세계 각국 항만에 알렸다. 일본은 영해침범이라는 반발과 함께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독도의 역사는 삼국사기에서 처음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512년) 6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신라영토에 귀속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진현조에서 무릉도라는 이름으로 조선이 관할하는 섬이라고 수록되어 있다. 고종 38년인 1903년 10월 25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04년 8월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했다. 이어 1905년 1월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시마 촌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해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같은해 2월 22일에는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면서 미국에 항복하고,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 각서에 따라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같은해 6월 22일에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리는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를 통하여 독도 부근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접근이 불허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로 편입됐다. 2005년 3월 19일에는 한국구조연합회 회원들이 독도 바다밑에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스테인리스 패널(가로 60cm·세로 40cm)로 만든 표지에는 '이 섬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라는 글씨와 함께 태극기와 독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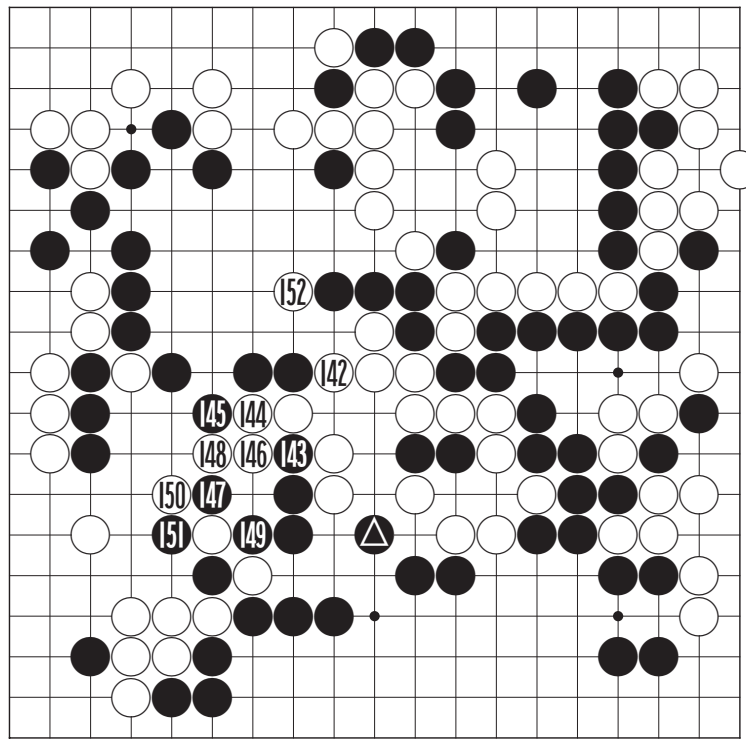
리빙 센스

맛있는 국 끓이기

'보글보글'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불 조절하는 것과 재료 넣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된장국 된장은 처음부터 넣고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된장이 뭉쳐 입안의 촉감이 나빠지고 고유의 향이 없어지므로 국이 끓어서 거품이 많이 일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주세요. 감자는 가능한 얇게 썰어 쉽게 익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생선을 넣을 경우에는 된장을 나누어 반은 처음에 반은 끓기 직전에 넣어서 끓여주세요. 생선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맑은 국국 맑은 국국은 깔끔한 맛이 중요한 만큼 소금의 양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화학 조미료를 넣어 주세요. 화학 조미료를 먼저 넣으면 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곰국 국물을 우려낼 때는 찬물에 처음부터 고기를 넣고 끓여주세요. 찬물을 넉넉하게 붓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여주면 깊은 고기맛이 우러나 국물맛이 좋아집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2월 9일 乙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5회 KBC시각장애 중등부 결승전

흑 ▲가 백 대마의 명맥을 끊는 통렬한 급수였다. 이 수로 백 대마가 자체에서 사는 수는 사라졌으며 이것으로 바둑이 끝나는 듯했다. 그래도 미련이 남는 지 김근홍군은 괴로운 신음을 내뿔으면 서도 백 142로 움직이고 144로 일단 나가 본다. 이것은 사수를 봤다기 보다는 던지기 위한 예비동작처럼 보인다. 그런데 백이 148로 찔러왔을 때 조금기에 몰린 강지수에게서 흑 149로

한줄기 희망 8보(142~152)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물러서는 대실수가 터져 나왔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높고 백 2, 4에 흑 3, 5로 다 받아주어도 7까지 아무 수도 없었던 곳이다. 이후 'a'와 'b'가 맞보기가 되어 백이 전멸이다. 김근홍군은 암흑속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며 152로 불어 국면을 혼돈속으로 몰아넣는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지은, 원양배 초반 부진

박지은은 8단이 제1회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대회 결승 3경기 1국에서 중국의 루이나이웨이 9단에 무릎을 꿇었다. 박지은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광화문체육대회 중신평터 열린 이 대회에서 맞붙은 루이나이웨이에게 296수 끝에 백만집패 했다. 박지은은 초반부터 중앙을 두텁게 한 뒤 우하귀에서 한바탕 크게 싸우며 실리와 세력을 키워왔지만 막판 끝내기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손해를 봤다. 이번 대회는 24명이 참여해 토너먼트제로 벌어지며 제한시간은 각각 2시간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상금은 우승 10만위엔, 준우승 3만위엔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woman and child, with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contact information.

A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굿모닝 잉글리쉬 <1077>', '오하오우 니혼고 <1077>', '니하오 쑹구위 <54>', and '한자 이야기 <694>'. Each column contains a topic, a question in the respective language, and the answer.